

# 새누리 · 무소속 예비후보 급부상

## FOCUS 20대 총선... 익산을 지역구 상향 점점

### 새누리 박종길 전 차관, 선거사무소 개소 후 인지도 상승 더민주 정전희 의원, 설 이후 당 여론 움직임이 변수 무소속 이석권 후보, 시민들 호응으로 향후 귀추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으로 인한 아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여권의 바람이 익산을 지역에 불고 있어 구정 이후 지역정치에서는 4과전 양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효표 30% 정도의 유권자표를 받으면 당선이 유력해진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더불어민주당(전정희 현 국회의원, 김영희 전 익산시의원), 국민의당(김연근 전 전북도의원, 김삼기 이영로, 조배숙 전 국회의원), 무소속 이석권 등 8

명이 익산을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표를 던졌다.

우선 새누리당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과 중앙부처 인맥이 좋은 관계로 전북지역에서 새누리당 의원 한명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에 당선되면 전남 이정현 최고의원 처럼 중앙부처에서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어 개소식 이후 인지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더민주 정전희 현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며 현역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당조치를 총동원해서 김영희 후보와 경선을 치루기 위한 전술전략을 밟고 있다. 현재 경선준비는 잘 되고 있으나 구정이후 당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당선외의 관건이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의 경우 3선 경력과 정치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고 구정 이후 국민의 당 경선을 치룰 경우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과 치열한 경선을 치러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이석권 참사랑 태권도 관장이면서 전 이정출신인 무소속 후보는 지금까지 아권의 두 명을 선출해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얼마나 국가예산을 확보해 왔는지를 다소 알고는 있지만 만족스럽게 국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중산층과 서민층은 거의 사라지고 부유층과 차상위층만 남아서 익산경제가 괴폐해지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출마함으로써 지역정가에서는 비록 무소속이지만 30년 이상 태권도 후배양성과 선진 농업인으로써 열심히 봉사한 결과 익산시민 사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으로 크게 두 개의 당으로 분당되면서 아권의 인기도는 추락해서 현재 경선을 치룬 후 본선을 진출을 해도 공천이 당선이다라는 그러한 풍조가 사라지고 있고 현재 유권자들은 익산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소문을 잘하면서 예산폭탄을 가져올 개끗한 정치인을 선출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6년 4월 13일 익산을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상은 새누리당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민의 당 조배숙 전 국회의원, 국민의 당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 국민의 당 김삼기, 무소속 이석권 참사랑 태권도 관장, 국민의 당 이영로,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전 익산시의원 등이 출마할 상태이다.

설 명절 이후 각 당의 후보들의 경선 이후 4명이(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무소속등)으로 압축되면서 치열한 총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박종열, 익산 4선거구 도의원 출마 선언

박종열 익산 제4선거구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사진)는 1일 오전 11시경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여러분과 같은 전라북도 도민이며 익산시민으로 38년 인생을 익산에서 살아왔다"고 밝히면서 출마 선언을 했다.

박 예비후보는 "8년 전, 32세의 젊은 나이 시의원에 출마했던 당시에도 주변이 수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젊음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시의원에 도전하여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그 후 익산시 비서실장을 역임해왔으며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익산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시 행정 경험을 쌓아오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익산=정영원 기자

### 저 총선 출마합니다

#### 박종덕 예비후보 "현역 컷오프 20% 원안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종덕 국회의원예비후보(완산을·사진)는 "현역 컷오프 20퍼센트 평가위 평가 결과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중 현역의원 평가가 지난 1월 12일에 종료된 지 20일이 지났다"면서 "실질적인 예비후보들의 경선과정에 접어든 현 시점까지도 평가결과가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민주적인 경선과정이 보장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하위 20퍼센트 평가된 25명 중에는 탈당의원이나 불출마선언을 한 의원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현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중에도 있을 수 있다"며 "평가된 내용 그대로 하위20퍼센트에 해당되는 25명을 명확히 발표해 혁신안의 중요내용인 현역평가가 엄중히 이루어졌음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약속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전북민심잡기 나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북민심잡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국현안과 당 입지 및 정책 등을 설명하는 등 전략적 광폭행보를 이어간다.

표창원 등 외부영입 인사들도 점심시와 전주시를 방문해 민생탐방에 나선다.

이들은 점심시장과 오찬과 풍납문 세월호 농성장소 방문 한지 관계자 간담회, 더불어 콘서트 등을 통해 제야당의 선명성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장보기 전북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전주 전통시장에서 정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친 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사진은 도의회 의원들이 전주남부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 더민주, 총선체제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대책위원장 산하에 총선거화단과 총선정책공약단을 설치하고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선대위 기구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선거대책위원장 산하 총선거화단과 총선공약단을 이끄는 각각의 단장은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총선거화단 산하에는 디지털본부, 경선관리본부, 전략기획본부, 운영지원본부, 조직본부, 조직2본부, 메시지본부 등 7개 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 중에서 조직1본부는 당무를, 조직2본부는 직능 시민사회단체를 관장하게 된다.

총선정책공약단 산하에는 5~6개 본부를 두되, 명칭과 기능 등을 민주정책연구원과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대위원장 직속으로 별도의 홍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추후 아권의 선거연대 논의를 위한 아권통합특위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총선거화단장에 정 전 의원을, 총선정책공약단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선임하는 인선안을 각각 확정했다.

한편 그동안 표류했던 호남특위 설치 문제는 특위 이름을 변경한 후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호남권의 시민사회단체가 특위와 연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성장론' 으로 경제민주화 실현 구체화

### 더민주, 총선서 중점... 공정·선도·네트워크경제 등 구성 김종인 선대위원장 "포용적 성장의 틀 이뤄질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 이를 이번 4월 총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단순한 총선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더민주를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아권이 분배에만 관심이 있고 경제성장에는 무관심하다는 국민의당의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강철규 공동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경제정책 기조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을 발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며 "더민주가 더불어성장

론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간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틀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할 것인가가 공약사항이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북의 정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 "당내 토론을 통해 당 기본정책이 아니라 강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이날 더불어성장론에 대해 "분배나 성장이나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성장론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공정경제"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을 담았다.

"선도경제"는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반도 신경제지도 대표되는 남북 경제 협력 방안도 담겼다.

또 '네트워크경제'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계층간의 상생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공동위원장은 기존에 당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성장 전략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경형 성장이었다"며 "이제는 바이오, 제약, IT, 항공우주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선도형 경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도 "더불어성장론도 다 포용적 성장론에 집합시킬 수 있고, 이는 경제민주화로 이행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더불어성장론이 있음을 강조했다.

### 성은순 예비후보, 노인복지시설 방문 봉사

더불어민주당 성은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1일 덕진구 유아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장기요양중인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위문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덕진구의 봉사원으로 잘 알려진 성은순 예비후보는 "봉사란 보이지 않는 곳의 아픔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으로 아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며 작은 곳에서부터의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자신의 봉사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실제로 성 후보는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으며, 지난 3년간 장학금을 2000만원씩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남달래 자신의 월급 전액을 50인 이하 개척교회 50여곳에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기도 했다.

성 예비후보는 "평교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종래의 가족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개인이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원샷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아당은 원샷법 '대기업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정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아당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기로 합의했지만 아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 정동영측, 덕진 전략공천 요구 보도 언론 고소

정동영 전 의원측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전북 전주덕진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보도한 해당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에 1일 영사고소했다.

정 전 의원측은 이날 해당 언론사를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동시에 해당 언론사 대표의 담당기자를 서 울남부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측 임종민 대변인은 "해당 언론의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정치적 인격살인행위이다"라며 "이는 복당을 거절하자 '정동영 죽이기' 음모가 시작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노는 항상 이렇게 '앞에서는 손잡고 하면서 뒷통수를 치는' 비열한 정치'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기

자가 소설을 썼거나 셋 중 하나"라고 언급한 뒤, 끝까지 파헤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정 전 의원측은 지난 달 30일 해당 언론의 허위보도 직후 "더민주 공천요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법무법인 대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조치를 검토해왔다.

신광영 기자

### 김호서-김정호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김호서, 김정호 국회의원의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제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전북의 유권자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민생이 파탄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호남정신을 부활하고 개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권의 혁신이 필요하다. 김호서, 김정호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최선부터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출마선언하면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정치' ▲변화의 정치 ▲실천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전북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 ▲농민이 살맛나는 세상 ▲청년이 살맛나는 세상 ▲가족이 살맛나는 세상 ▲소외계층이 살맛나는 세상 등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5대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서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주완산에, 김정호 예비후보는 완주지역에 각각 출마한다.



신광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신광영 기자 · 안주=이종복기자